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 박사



지난달 21일 BTS의 광화문 광장 컴백공연은 글로벌 팝 스타의 현대적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국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세계사의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이번 공연은 BTS가 군 복무 이후 완전체로 귀환했다는 상징성과 함께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개국 실시간 동시 중계되어 한민족 문화의 높은 위상을 보여줬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은 한민족을 상징하는 의미로 앨범 명인 '아리랑'과 함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로 한국 고유의 정서를 기반으로 한 '한국적 팝의 시초'를 알리는 행사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그러면 한국인이 즐겨 부르는 아리랑의 유래와 의미가 무엇일까? 아리랑은 한민족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며 역사의 질곡을 지켜보고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민요이다. 아리랑은 고대로부터 구전에 의해 전래돼 우리민족이 고난을 극복하는 민요로서 전국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고 변형돼 불려왔다. 아리랑의 아리는 '고운'이라는 뜻의 옛말이고 랑은 '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아리가 예전 국어에서 아름답다, 곱다, 아름다운의 뜻으로 쓰인 흔적은 현대 한국어에서 아리따운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몽골에서는 지금도 아리는 고운, 곱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때 아리랑의 첫 번째 뜻은 고운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쓰리랑은 마음이 쓰리다 즉 마음이 아리다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BTS 신드롬과 아리랑의 세계사적 의의

며 마음이 아리고 쓰리도록 그리운 님이라는 뜻이 된다. 아리랑의 랑은 삼국시대에는 한자어로 낭(郎)자를 써서 젊은 남녀를 모두 표현했다. 통일신라 이후 조선시대에는 남녀를 구별하여 남자는 주로 낭(郎)자를 여자는 낭(娘)자로 구분했다.

그러나 발음은 모두 랑으로 발음되며 뜻은 모두가 님을 의미하는 사내와 아가씨를 가리킨다. 신라 향가에 죽지랑(竹旨郎) 기파랑(奇婆郎) 등이 좋은 사례이다. 아리랑의 한(恨)은 가슴속에 시퍼런 서늘을 가진 한(恨)이 아니다. 풀려고 해도 금방 끝을 맺지 못하는 여운으로 남는 그런 한(恨)이다. 1910년 한일 합방 후부터 일제강점기 말엽까지는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과 울분을 애절한 아리랑 가락에 실어 스스로를 달래 왔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BTS가 첫 무대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선택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품은 경복궁이 복귀 무대의 배경이 되었고 근정문과 흥례문, 광화문으로 이어지는 왕의 길이 전 세계에 생중계로 비추졌다.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에서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BTS의 컴백 공연은 전 세계가 한국의 역사적 공간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글로벌 음악 시장을 호령하는 K팝과 한국의 전통문화가 결합한 이 장면을 계기로 향후 한국문화와 관광의 급격한 흐름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BTS의 공연은 한국의 문화제와 국가유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끌어낸 하나의 콘텐트가 됐다. 외신도 광화문광장을 한국의 역사적 공간으로 소개했다. 교토통신은 이번 공연장소는 조선왕조의 궁전인 경복궁 등 문화제가 모인 관광지라고 설명했고, 멤버들이 서 있던 광화문 월대와 경복궁이 성지로 떠오르면서 고궁투어에 나서는 해외 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BTS의 이번 컴백 앨범에는 한국민요 아리랑,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 종소리 등 한국적 요소들이 녹아있다. 새 앨범 아리랑에 수록된 'Body to Body'에는 아리랑의 선율이 담겨있다. Aliens에서는 이제 K팝의 K가 어디인지 안다며 한국의 문화적 위상을 강조했다. 문화강국의 비전을 제시했던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류 콘텐츠 하나가 엄청난 관광수요를 창출한다는 공식은 여러 차례 입증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BTS의 이번 컴백 공연은 단순히 신곡 발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깊은 역사와 눈부신 유산을 전 세계에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닌다.

필자는 BTS의 이번 광화문 공연이 '오징어게임', '케데헌' 등 K콘텐츠와 더불어 한국을 찾게 하는 '소프트파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게임은 달고나 만들기, 딱지 게임, 구슬치기 같은 한국의 놀이를 세계에 알렸다. 케데헌은 K팝 외에도 남산타워와 한옥마을, 명동거리 등 한국의 장소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케데헌의 흥행에 BTS의 목격한 컴백까지 더해진 지금 팬덤관광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SNS에는 광화문 공연 전후로 BTS 성지순례 해시태그가 담긴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여행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주요명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투어 상품 트래픽이 27%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BTS의 광화문 공연은 단순한 관광이미지를 넘어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 차원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 흐름을 한국으로 향하게 해 한국을 찾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방향전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기고

나중원

공학박사·경영학박사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오늘날 조직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방대하고 빠르게 출렁이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과 실행,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체계적인 분석과 유연한 대응, 그리고 사람 중심의 소통이 조직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 조직은 신속한 업무 처리와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는 기민함을 갖추어야 한다. 단방향적 소통을 넘어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부서와 직급 간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디어와 전문성이 융합되는 개방적 소통 환경은 복잡한 문제 해결과 창의적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오늘날, 이러한 조직 문화는 혁신 달성을 위한 필수 기반이 된다.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된 소통 체계이다.

또한, 조직을 움직이는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기술적·환경적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

AI·디지털 시대...혁신 이끄는 리더십과 소통

는 나침반 역할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은 변화를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이는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장기적인 조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조직 운영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의 혁신을 동반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세운 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성공적인 변화 관리의 핵심이다.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저항을 최소화하고 조직 전반에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려면 다양한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융합적 노력은 사람과 기술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조직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발생한 라다이트 운동에도 불구하고 산업 혁명이라는 큰 흐름은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었고, 기술적 진보는 경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수공업은 마침내 공장 기반의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대체되었으며, 경제는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빠른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과 실행이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이 조직 내 의사

결정 과정에도 깊숙이 침투하면서, 리더는 기술적 이해와 함께 사람 중심의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기술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존중하여 혁신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은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과 소통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과 기민한 피드백,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신뢰와 공감을 결합한 통합적 역량이다. 전략과 실행, 사람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만이 성장과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변화와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는 통찰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십 전략이 디지털 시대의 조직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리더들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이해하고, 구성원과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미래와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조직 내 개방적 협력과 신뢰 기반 문화를 구축하여, 혁신을 향한 집단적 노력을 촉진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리더십과 소통 전략은 단기적인 성공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필수 요소이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조직을 미래로 이끄는 힘은 결국 사람과 소통,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는 리더십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취재수첩

중동발 '충격'...서민 경제 안정에 총력을

윤용성

산업부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광주·전남지역 물가 도미노 쇼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수입 불안은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발 원자재값 상승은 기름값과 공산품 가격 급

등은 물론이고 농축산물 등 생활 먹거리 전반의 연쇄 타격까지 곧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하는 등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지만 물가 관리의 한계가 있다.

석유 가격 급등이 현실화한 데 이어 각종 원료와 소재 수급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중 나프타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공산품 제조의 기초 원료로, 국내 수요의 50%를 수입하고 이중 60% 정도가 중동산이다.

중동 전쟁 이후 이미 공급량이 약 30% 감소했다. 때문에 식품 포장재와 종량제 봉투 등 비닐, 병원에

서 쓰는 '수액백' 등 의료용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소비재 전반의 생산 차질이 가시화하며 '4월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다.

물가 충격은 에너지뿐 아니라 생산 전 부문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국가데이터베이스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에너지물가지수는 142.89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에너지 가격에 바로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지수도 지난해 118.8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지원책이 지역 현장에 제때,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할 것이다.

서민의 삶이 안정돼야 산업의 활력도, 경제의 제도도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설

국가 AI 컴퓨팅센터 건립 차질없이 진행돼야

해남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센터(이하 AI컴퓨팅센터) 건립이 '속도'를 내게 됐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성 SDS컨소시엄이 최근 관련 건축 허가를 해남군에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남군은 이달 중 인허가 절차를, 상반기에 실시설계·착공계를 마무리한 뒤 28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기로 했다.

AI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이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9000억원을 투입, 약 1만 5000평 부지에 연면적 1만평 규모에 조성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상 2층 규모의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으로 구성되며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됐다.

완공되는 2028년까지 GPU 1만5000장을 탑재해 초거대 AI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적 AI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GPU(Graphics Processing Unit·그래픽 처리장치)는 컴퓨터가 그래픽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로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모든 이미지, 동영상, 게임 그래픽 등을 더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중앙 처리장치)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직렬 처리하는 반면 GPU는 여러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방식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 데이터의 빠른 처리가 필요한 AI 시대, 최적화된 컴퓨팅 자원이다.

해남군은 AI 컴퓨팅센터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저탄소 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친환경 인프라 모델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감안, 가동에 필요한 전력 공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내 154kV 변전소 설치 인허가를 조만간 완료하고 오는 7월 착공해 센터 운영 시점인 2028년 4월 준공기로 한 것이다.

또 이를 마중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센터 추가 유치하고 관련 연구소와 기업이 모여드는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AI컴퓨팅센터가 예정대로 차질없이 조성돼 솔라시도가 AI첨단산업의 국가 거점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에너지 수도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광주 아파트 전세난 심화... 대책은 있나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난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시장에 아파트 매매 매물은 쌓여가는데 전세 물량은 줄고 있다. 기존 전세도 가격이 치솟아 감당하기 어렵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는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지역 전세 매물은 2305세대로 지난해 같은 날(2547세대)보다 약 10%, 2년 전(3643세대)보다 4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공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광주는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위험을 미리 피하기 위해 예전 전세로 나오던 매물들이 매매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 주택 담보대출 강화로 이자가 꾸준히 오른 데다 경기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나 월세로 그대로 눌러 앉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많은 미분양 물량, 민간공원 등 특정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세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부동산 대신 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매매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 2월 4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185건)보다 7.8% 줄었다.

이 기간 매매 매물은 2만5893세대로 1년 전(2만3680세대)과 2년 전(1만9991세대)보다 늘어났지만 거래 물량은 지난 2월 1417건으로 전년동월(1585건) 대비 10.6% 감소했다.

이처럼 매매시장은 얼어붙고 전세시장에는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라 가는 '수급 불균형'양상이 계속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0.01%오른 이후 물 들어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계속 내리막 추세다. 반면 전세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앞으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팩스 (062) 385-540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간)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